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と 編制에 대한 고찰

金大亨 · 安相佑*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Author and Formation-Comparison of 『Ohjangyukbudo』 quoted by 『Euibangyoochul』

Kim Daehyung,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hjangyukbudo(五臟六腑圖)』 is the Book Name which was recorded in 『Euibangyoochul(醫方類聚)』, and the Author had been clarified as "Hoeum(胡音)" in accordance with those books likely as 『New Records of Tang Dynasty(新唐書)』, 『History of Song Dynasty(宋史)』.

The said "Hoeum" had displayed her activity at the Age of Tang Dynasty, as a Female-Physician also a Female Taoist, who retired to hermitage in Mount Taebaek. As being perceived the abstruse reasons in those scriptures named 『Hwangjungkyung(黃庭經)』 and 『Koodo(舊圖)』, she composed the book at Daejung 4th Year of King Sun, namely AD 848 named 『Hwangjungnaekyungohjangyukbubosado(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Key word : Ohjangyukbudo, Euibangyoochul, Hoeum, Dojang

I. 序論

『五臟六腑圖』는 『醫方類聚』의 「引用諸書」¹⁾에 인용되어 있는 서명으로 著者と 저작연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醫家와 道家관련 서적에서도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上

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黃庭五臟六腑圖』 등 서명과 내용이 유사한 문헌들이 있으나 동일한 서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의 「太宗實錄 十冊 卷第二十四」에서 충주사고에 있는 『五臟六腑圖』 등²⁾의 서적을 춘추관에 보관하라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을 따름인데

1) 「引用諸書」에는 黃帝內經素問, 靈樞, 運氣 五臟六腑圖 등 모두 153종의 서적을 포함하고 있다.

2) 춘추관으로 옮겨진 의학에 관련된 기타 서적으로는 『小兒巢氏病源候論』, 『新雕保童秘要』, 『廣濟方』, 『陳郎中藥名詩』, 『神農本草圖』, 『本草要括』, 『王叔和脈訣口義辨誤』, 『黃帝素問』 등이 있다. 「한국의학사, 김두중, 탐구당, 1993, pp. 151~152.」 참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史官 金尙直에게 명하여 忠州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는데, 『小兒巢氏病源候論』, 『大廣益會玉篇』, 『鬼谷子』, 『五臟六腑圖』...등의 책이었다. ...그 나머지는 春秋館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³⁾

『五臟六腑圖』가 인용되어 있는 『醫方類聚』는 “세종 때 처음 완성된 후 성종대에 간행된 현존 최대의 한의방서이다. 당초 365권에 이르는 규모가 세조대 재편 과정에서 100여권이 줄었지만 현재 전해지는 양만 해도 260여권에 달하는 거질이다. 이 책에는 200종 가량의 의서와 의학 관련서가 인용되었으며, 당, 송, 원, 명대 초기까지의 중국 의서와 고려, 조선 초기까지 고유의학의 성과를 담고 있는 당시 최고의학 수준이 집대성된 의서이다.”⁴⁾라는 평가받고 있다. 『五臟六腑圖』는 『醫方類聚』의 91門⁵⁾중에서 「五臟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들이 여러 곳에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어 전체적인 면모를 알아보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東醫寶鑑』의 「五臟六腑」門에는 각 장부마다 導引法과 修養法이 존재하며 「麗仙」, 「養性書」, 「養生書」⁶⁾를 출전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導引法과 修養法이 모든 臟腑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五臟과 膽에만 존재하고 나머지 臟腑, 즉 小腸, 胃, 大腸, 膀胱, 三焦에 대해서는 존재여부를 알 수가 없어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東醫寶鑑』의 臟腑導引法과 修養法의 역사적 유래와 연원을 추적하던 중 『醫方類聚』의 「五臟門」

에 산재되어 있는 『五臟六腑圖』라는 문헌의 일부내용임을 확인하였고, 『醫方類聚』에도 五臟과 膽에 관련된 내용만 있어서 나머지 장부의 내용에 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또한 안타깝게도 『醫方類聚』에는 저자와 서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저작시기 및 저작배경등을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도가 경전을 모아 놓은 『道藏』⁷⁾에서 의학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던 중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등 몇 가지 문헌⁸⁾에서 『醫方類聚』에 실린 『五臟六腑圖』의 저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으며, 또한 『東醫寶鑑』과 『五臟六腑圖』의 도인법과 수양법이 五臟과 膽으로 구성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문헌이 동종의 모본으로부터 비롯한 내용상 동일 계통의 문헌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馬繼興이 지은 『中醫文獻學』⁹⁾의 「五臟論類著作」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唐代 女道士인 胡愔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 1卷¹⁰⁾이 현존하며 『道藏』에 수록되어 있다. 自序에 의하면 ‘舊圖’에 근거하여 撰繪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본문중에 단지 五臟神圖만 존재하고, 臟腑圖는 이미 결손되었다.

또한 『醫方類聚』에도 일찍이 『五臟六腑圖』 一書의 佚失된 글과 그림을 수록하고 있는데 오직 편찬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 내용은 胡愔의 저

3) 『太宗實錄 十冊 卷第二十四 12月 7日(己未)』 “命史官金尙直 取忠州史庫書冊以進小兒巢氏病源候論 大廣益會玉篇 鬼谷子 五臟六腑圖...其餘下 春秋館藏之”

4) 『醫方類聚』 편찬과 조선전기 의서, 안상우, 1999.

5) 『醫方類聚』의 의과학적 연구, 안상우, 2000, p. 32 참고.

6) 『東醫寶鑑』에서 肝臟導引法, 心臟導引法, 脾臟導引法, 肺臟導引法, 膽腑導引法은 『麗仙』을, 脾臟修養法, 肺臟修養法, 腎臟修養法은 『養性書』를, 肝臟修養法, 心臟修養法은 『養生書』를 출전으로 삼고 있다.

7)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의 36冊으로 이루어진 『道藏』을 참고로 한다.

8) 『五臟六腑圖』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서적으로는 道藏에서는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 『黃庭遁甲緣身經』, 『四時攝生圖』, 『太上養生胎息氣經』 등이 있다.

9)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0) 『道藏』에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이라는 서명은 없고, 『黃庭內景五藏六府圖』라 되어 있다.

작과 대부분이 일치하므로 다른 傳本의 하나(不同的傳本之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佚文中에 ‘處士孫思邈’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 책은 唐初이 후에 撰寫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臟圖와 內臟神圖가 첨부되어 있는데 단지 肺·心·肝·脾·腎·膽 6개의 그림만 있다. 그 그림들이 여러번 베끼고 그려지는 과정에서 이미 본래면목을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다.“ 馬繼興은 ‘唐代 女道士인 胡愔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 1卷이 현존하며……단지 五臟神圖만 존재하고, 臟腑圖는 이미 결손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에는 臟腑圖의 그림이 남아 있지 않으며,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는 肺·心·肝·脾·腎의 五臟圖와 膽腑圖를 포함하여 6개의 그림만 존재하므로 馬繼興은 臟腑圖의 그림에 대하여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내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黃庭內景五臟六腑圖』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馬繼興은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 대해서 ‘不同的傳本之一’이라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 확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여러 가지 史料와 그동안 연구되어 온 자료를 통하여 저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醫方類聚』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은 序文의 내용을 통해서 『五臟六腑圖』가 저작된 배경과 저작시기를 추정해보고, 『黃庭內景五臟六腑圖』·『黃庭內景五臟六腑補

瀉圖』의 편제형식을 빌어 『五臟六腑圖』를 재구성해 보아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세가지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언급되는 「肺臟(藏)圖」를 소재목 중심으로 비교해본다.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서문은 『五臟六腑圖』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내용을 분석하는데 주요 논거를 삼아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II. 本論

제1장 : 저자와 저술배경 및 저술시기

현재까지 필자가 살펴본 바로는 『道藏』에 수록된 『黃庭內景五臟六腑圖』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가 『五臟六腑圖』와 내용상 가장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고문헌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道藏』은 正統10년(1445)에 만들어진 『正統道藏』과 萬曆35년(1607)에 만들어진 『續道藏』을 합하여 출간한 상해관도장¹¹⁾을 저본으로 하는 것으로 『道藏』에는 『醫方類聚』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著者と 序文이 있어 『五臟六腑圖』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참고문헌으로 삼고자 한다.

序文에는 저자와 저술배경 및 저술시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므로 『五臟六腑圖』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11) 『도교란 무엇인가』, 崔俊植 옮김, 民族社, p. 66.에서 “道藏은 正統10년(1445)에 편찬된 이른바 『正統道藏』(5305권)과 萬曆 35년(1607)에 계속해서 편수된 『續藏』(180권)을 합해서 간행한 것으로 이것을 (중화)민국시대에 영인한 것이 1,100권 가량 되는 상해관 『道藏』이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책 pp.74~75에서는 “현재의 『道藏』은 명의 正統10년(1445)에 480합 5305권의 도교전적이 수집된 것이다. 이것을 『正統道藏』이라고 부른다. 그 후 萬曆 35년(1607)에 正一敎 제 50대 天師 張國祥이 명을 받아 32합 180권의 도교 전적을 수집했는데, 이것이 『續道藏』이다. 오늘날 간단히 줄여서 『道藏』이라고 하면 『정통도장』과 『속도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진본의 『도장』을 쉽게 이용할 수는 없지만, 중화민국 13년(1924년)부터 15년(1926년)에 걸쳐 상해 涵芬樓가 北京 白雲觀의 藏本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도관의 것을 모아 영인하고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것이 1120책으로 된 상해관 『도장』이다.”라고 『도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저자에 대하여

『道藏』의 『黃庭內景五藏六腑圖』과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는 『五臟六腑圖』와 전체적인 편제형식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문헌의 서문에 기재되어 있는 著者인 胡愔을 『五臟六腑圖』의 저자라고 추정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五臟六腑圖』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胡愔에 대해서 『漢醫學大辭典』¹²⁾의 『醫史文獻篇』에 의하면 “唐代的 女醫家, 「胡愔方」 2卷을 撰하고, 또 「黃庭內景五藏六腑圖」 1卷을 撰했으나 佚失됨”이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黃庭內景五藏六腑圖』는 佚失되지 않고 道藏에 존재하므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道藏, 史料, 中國醫籍通考 및 사전류 등의 자료를 통해서 胡愔과 그의 저작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1.1 道藏

『道藏』의 『黃庭內景五藏六腑圖』¹³⁾序文에는 ‘太白山見素女胡愔撰’이라 하였고,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¹⁴⁾의 序文에는 ‘太白山見素子胡愔述’이라 하여 두 문헌의 저자에 대한 견해가 대동소이하다.

太白山은 일찍이 갈홍이 포박자에서 언급한 명산 중의 하나로서 『道教大辭典』¹⁵⁾과 『中華道教大辭典』¹⁶⁾에서 陝西省眉縣에 위치한 지명으로 표시하고 있고, 『道教醫學』¹⁷⁾에서는 浙江省 金華縣의 東陽이라 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태백산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나 도가수련을 했던 은거지라

고 추측할 수 있다.

‘見素子’ 혹은 ‘見素女’는 저자의 道號로 보이며, 胡愔이 실제 저자의 이름으로 여겨진다. 『新唐書』¹⁸⁾에 ‘女子胡愔黃庭內景圖一卷’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자인 胡愔은 여자가 분명하다.

‘太白山見素女胡愔’ 혹은 ‘太白山見素子胡愔’으로 표기된 것은 ‘태백산에 거주하는 見素女(子)라는 道號를 가진 女道士 胡愔’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胡愔이 여자이고, 은거지가 太白山이며, 道號가 見素子(見素女)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 史料

『新唐書』와 『宋史』 등의 사료에서도 호음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新唐書』에는 “여자인 호음이 黃庭內景圖 1권을 지었다”고 하여 호음이 여자임을 明記하고 있다.

『女子胡愔黃庭內景圖』一卷 (『新唐書 卷五十九 志第四十九 藝文三』)

『宋史』에는 호음의 저작으로 『胡愔黃庭內景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一卷 등이 있는데, 모두 『宋史』 卷二百五 志第一百五十八 藝文四에 기재되어 있다.

『胡愔黃庭內景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一卷 太白山見素女子胡愔撰¹⁹⁾

(『宋史 卷二百五 志第一百五十八 藝文四』)

1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13) 『道藏』, 4冊 修真十書 卷之五十四.

14) 『道藏』, 6冊.

15) 華夏出版社, 1995, p. 241.

16)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p. 1682~1683.

17) 蓋建民 著, 宗教文化出版社, 2001.

18) 『新唐書』, 卷五十九 志第四十九 藝文三.

19)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에는 太白山見素女子胡愔撰이 太白山見素子胡愔述로 되어 있다.

1.3 中國醫籍通考

『中國醫籍通考』²⁰⁾에서는 『藝文略』, 『宋志』, 『新唐書』, 『道藏本』, 『全唐書』 등의 사료에서 『胡愔方』, 『補瀉內景方』, 『黃庭內景圖』, 『黃帝內景五藏六府圖』, 『黃庭內景圖』 등의 문헌을 참고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胡愔方』에 대한 설명에서 호음을 女醫家로 평가하고 있으며, 『胡愔方』에 대한 설명에서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并序』 1卷을 『黃庭內景五藏六腑圖』로 의심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두 문헌의 내용과 편제가 유사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書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胡愔方.

胡愔 『藝文略』 二卷 佚

胡愔은 당나라 女醫家이다. 『胡愔方』 二卷, 『黃庭內景五藏六腑圖』 一卷과 『補瀉內景方』 三卷을 撰했다. 『道藏』에는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并序』 一卷이 있는데, 『黃庭內景五藏六腑圖』인 것으로 의심되며, 현존한다.

② 補瀉內景方

胡愔 『宋志』 三卷 佚

③ 黃庭內景圖

『藝文略』에는 『黃庭五藏內景圖』로 되어 있다.

胡愔 『新唐書』 一卷 佚

④ 黃帝內景五藏六府圖

胡愔 현존하며, 현재 판본은 『道藏本』을 영인한 것이다.

⑤ 黃庭內景圖

胡愔 『崇文總目』 一卷 佚

『全唐書』 卷 945 에는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序』가 唐나라 胡愔의 저서라고 되어 있다.

1.4 기타 사전류

『中華道教大辭典』, 『道教文化辭典』, 『道教大辭典』, 『中國醫籍大辭典』 등의 도교와 의학관련 사전에서는 胡愔에 대해서 호·이름·저작 등에 대한 기초자료와 서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인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胡愔은 唐宣宗大中年의 사람이다. 女道士로서 자칭 太白山見素子라 한다.’²¹⁾

② ‘唐代的 여자로 道教理論家이다. 또 다른 이름은 見素子이다. 어려서 玄門을 사모하여 뜻을 단련하여 억지로 함이 없고, 志를 담박하게 길렀다. 각종 자료와 경전을 모아서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를 撰했으며 후대에 끼친 영향은 비교적 크다.’²²⁾

③ ‘당대의 도사로 호는 見素子이다. 태백산에 은거하여 澹泊하게 삶을 살았으며 마음을 淸虛하게 하여 『黃庭經』을 보기를 좋아하였다. 양생하는 학문에 뛰어나 眞氣를 內煉하는 것을 주로 하였으며, 밖으로는 醫藥으로 보좌하였다.’²³⁾

④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序』: ‘1권으로 당나라 胡愔(道號는 見素子이다)이 撰했다. 당나라 大中2년(848)에 책이 지어졌다. 『新唐書·藝文志』와 『宋史·藝文志』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가 후에 『道藏』에 포함되었다. 다른 명칭은 『黃庭內景

20) 嚴世囊 主編,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21) 『中華道教大辭典』 p. 106.

22) 『道教文化辭典』 江蘇古籍出版社, 1994, p. 211.

23) 『道教大辭典』 華夏出版社, 1995 p. 700.

五臟六腑圖』이며, 간략하게 『黃庭內景圖』라고 한다...현존하는 판본은 『道藏』에 있다.²⁴⁾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胡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五臟六腑圖』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胡愔은 의학을 공부하였기에 女醫家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도가 수

련을 하였기에 女道士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太白山에서 은거하였으며 道號는 見素子 또는 見素女이다. 어려서부터 道家의 玄門을 사모하여 황정경을 보기를 좋아하였으며, 도가수련으로 하면서도 의학공부를 병행하였다.

그의 저작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한다.

표 1. 인용문헌별 著作書名

引用文獻	著作書名
新唐書	『女子胡愔黃庭內景圖』一卷
宋史	『胡愔黃庭內景圖』一卷, 『黃庭外景圖』一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一卷
中國醫籍通考	『胡愔方』二卷, 『黃庭內景五臟六腑圖』一卷, 『補瀉內景方』三卷,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并序』一卷, 『黃帝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圖』, 『黃庭五臟內景圖』

표에 있는 저작들 대부분이 현재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黃帝內景五臟六腑圖』은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같은 문헌으로 보이는 등 동일한 내용을 가진 저작이 다른 서명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²⁵⁾이 있으며, 실제 저술목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書名에 있어서 黃庭·內景·外景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이는 黃庭經의 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자가 黃庭經에 대한 연구를 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五臟六腑와 內景이란 용어를 통해서 호음은 외단쪽보다는 인체 내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황정경과 의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호음이 의학공부와 도가수련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위의 문헌을 세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胡愔方』, 둘째 內景에 관련된 문헌, 셋째 外景에 관련된 문헌이다.

1. 『胡愔方』
2. 『女子胡愔黃庭內景圖』, 『胡愔黃庭內景圖』, 『女子胡愔黃庭內景圖』,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并序』, 『黃帝內景五臟六腑圖』, 『黃庭五臟內景圖』
3. 『黃庭外景圖』

24)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下冊

25) 일 예로 中國醫籍通考에서 『黃庭五臟內景圖』를 『黃庭內景圖』의 異名으로 보고 있다.

『胡愔方』은 의학에 관련된 문헌으로 보이는데, 호 음이 지은 처방에 기록한 문헌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書名이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각 臟腑圖에 처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호음은 황정경의 영향을 받아 인체를 內景과 外景으로 나누어 저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黃庭內景玉經註』 26)의 글을 인용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黃이란 中央의 색이며 庭이란 四方의 中央이다. 밖으로는 天中, 人中, 地中을 가리키고, 안으로는 腦中 心中 脾中을 가리키므로 黃庭이라고 한다. 內는 心이고, 景은 色象이다. 外로는 日月 星辰 雲霞의 형상에 비유하고 內로는 筋骨 藏府의 형상에 비유한다. 心이 身內에居하고 있으면 一體의 形象과 色을 보게 되므로 內景이라 말한다.²⁷⁾

內를 筋骨 藏府의 형상에 비유하므로 內景은 筋骨과 藏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 內景이 藏府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데도 書名에서 內景과 五藏(五臟)과 六府(六腑)를 같이 언급한 것은 오장과 육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內景과 오장만 언급한 서명은 오장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명에 內景이란 명칭과 더불어 오장과 육부를 같이 언급하였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內

景과 관련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女子胡愔黃庭內景圖』, 『胡愔黃庭內景圖』, 『女子胡愔黃庭內景圖』,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并序』, 『黃帝內景五臟六府圖』, 『黃庭五臟內景圖』 등을 內景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문헌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黃庭外景圖』에서는 身外의 天文이나 地理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으나 外景은 ‘日月 星辰 雲霞’의 형상에 인체를 비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黃庭外景玉經』²⁸⁾이 藏府에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적으며, 장부이외의 인체부위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黃庭外景圖』는 다르게 분류하여야 한다.

2. 저술 배경

『黃庭內景五臟六府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²⁹⁾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체 내부, 즉 장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고 나서 修行할 것을 강조한다. 호음이 살았던 당나라는 외단의 부작용에 의해서 天子와 지식인들까지 중독되어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폐단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³⁰⁾ 외단이나

26) 『道藏』 4冊, 梁丘子 撰.

27) “黃者 中央之色也 庭者 四方之中也 外指事 即天中 人中 地中 內指事 即腦中 心中 脾中 故曰黃庭 內者 心也 景者 色象也 外喻 即日月 星辰 雲霞之象 內喻 即 筋骨 藏府之象也 心居身內 存觀一體之象色 故曰 內景也”

28) 『道藏』 4冊, 梁丘子 撰.

29) 『道藏』 6冊.

30) 『도교란 무엇인가』 (pp. 253~255)에서는 太宗, 憲宗, 穆宗, 敬宗, 宣宗등 唐 天子들의 中毒死와 사회에 만연해진 수은중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일 예로 호음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나라 15대 武宗과 16대 宣宗의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대 武宗(재위 840~846)은 열렬한 도교신자였기 때문에 당시 융성의 극에 달했던 불교에 대한 탄압을 가했는데 이 탄압 사건을 그 연호인 會昌 5년(845)에 따라 會昌의 폐불이라고 한다. 『新唐書』 武宗本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회창 6년 3월, 壬寅日, 황제는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하였는데, 회로의 감정이 항상성을 잃어버리고 10일 동안이나 말을 못

내단수련이나 모두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장생을 바라는 것은 같은 바이나, 당나라는 외단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적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인체 내부에 관심을 두고 수행할 것을 후학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먼저 장부를 명확히 밝히고, 다음에 수행을 설명한다. (先明臟腑 次說修行)
- 이러한 때에 이르면 金丹을 빌리지 않더라도 玉液瓊玕이 크게 돌아 자연스럽게 神化하여 冲虛³¹⁾하게 되고 氣가 太和와 합치되어 雲漢³²⁾에 오르게 된다. (至此之時 不假金丹 五液瓊玕大還 自然神化 冲虛 氣合太和而升雲漢)
- 이로써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수고스럽게 밖에서 구하나 실제로는 生之道를 알지 못한다.(是以不悟者 勞苦外求 實非知生之道)

둘째는 후학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여러 경서에 근거하여 별도로 圖式을 만들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異端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하게 되면 본래의 면목이 드러나 만물에 밝아지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연장시키며 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 異端을 수련하고자 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그 門을 얻게 하는 것이 드물었다. 毫釐의 차이는 천리를 벗어나므로 지금 좁은 소견들을 두루 모으고 아침 하는 풍문을 없애며 여러 經書에 근거하여 살펴본 아 별도로 圖式을 만들었다. (慕修異端 斯起遂使後學之輩 罕得其門 差之毫釐 謬逾天里 今敢搜羅管見 □竭談聞 按據諸經 別爲圖式)

- 뒤에 오는 공부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림을 살펴볼게 하여 六情이 드러나게 하고서 經書를 열어보면 萬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庶使後來學者 按圖而 六情可見 開經萬品而昭然)
- 그러한 후에 五臟이 강하고 견고하게 되면 안으로 비리고 썩은것(腥腐)를 받더라도 모든 독이 침범할 수 없으며, 밖으로 질병을 만나더라도 모든 기가 손상되어질 수가 없어서 聰明하고 純粹하며 늙음을 물리쳐 생명을 연장하여서 志高한 神仙이 되어 形이 노곤하거나 피로하지 않게 된다. (然後五臟堅強³³⁾則內受腥腐 諸毒不能侵 外遭疾病諸氣不能損 聰明純粹 却老延年 志高神仙 形無困疲)

3. 저술시기

『五臟六腑圖』의 저술시기에 대해서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³⁴⁾에 ‘時大中二年戊辰歲述’로 明記되어 있다. 大中은 당나라 宣宗³⁵⁾의 年號이고

했다. 재상 李德裕 등이 알현을 청했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궁중 안팎에서 황제의 안부를 아는 사람도 없었으며 인심은 흉흉해져만 갔다. 그러다 같은 달 23일 황제는 죽고 皇太叔 光王이 관 앞에서 즉위했다. 이때 봉어한 황제의 나이는 23세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초조라든가 기쁘고 슬픈 감정의 상실증세도 현종의 경우와 같다. 다음으로 16대 宣宗(재위 846~859)도 금단술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집하였다. 선종은 李玄伯이 조제한 장생약을 복용하고 疽(악성종양)가 등에 나고, 조갈과 초조와 같은 수은중독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31) 冲虛 :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공허하게 함, 허공을 헤쳐나감.

32) 雲漢 : 銀河水, 銀漢, 하늘.

33) 『黃庭內景五臟六腑圖』에는 ‘然後五臟堅強’이 ‘骨氣堅強’으로 되어 있다.

34) 『道藏』 6冊

35) 재위기간 : 847-859

대중2년은 서기848년에 해당한다. 이 문헌이 수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新唐書·藝文志인 것으로 보아 현재 그 이상 상한연대를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위에서 나타난 서문의 작성시기와 부합된다.

제 2장 : 『五臟六腑圖』의 編制와 「肺臟圖」 (그림)

1. 『五臟六腑圖』의 편제

『醫方類聚』의 卷之五에서 卷之十二까지 『五臟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五臟六腑圖』는 「五臟門」의 卷之五, 卷之六, 卷之十二에 나누어져 인용되어 있다. 각 권별로 인용된 문헌은 아래와 같다.

『五臟六腑圖』는 각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다. 예를 들어 卷之十二의 「五藏導引」은 五藏과 관련된 導引을 말하는데, 五藏을 중심에 두고서 『巢氏病源』과 『五臟六腑圖』의 臟腑와 관련된 導引法과 修養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醫方類聚』 「五臟門」의 卷별 인용문헌

醫方類聚		引用文獻
卷之五	五藏門 二	千金方, 五臟六腑圖, 聖惠方, 簡要濟衆方, 三因方, 簡易方
卷之六	五藏門 三	簡易方, 直指方, 儒門事親, 聖濟總錄, 永類鈴方, 金匱方, 千金方, 五臟六腑圖
卷之十二	五藏禁忌	千金方, 五臟六腑圖
	五藏導引	巢氏病源, 五臟六腑圖

『巢氏病源』의 내용은 「肝病候」, 「心病候」, 「脾病候」, 「肺病候」, 「腎病候」, 「膀胱病候」, 「五藏橫病候」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諸病源候論』 「卷之五 五臟六腑病諸候」의 내용전체를 인용한 것이다.³⁶⁾

『五臟六腑圖』의 내용은 「肺藏修養法」, 「心藏修養法」, 「脾藏修養法」, 「腎藏修養法」, 「膽藏修養法」, 「五臟六腑圖文備記」로 구성되어 있다.

『五臟六腑圖』를 『巢氏病源』의 내용과 연계해서 볼 때 「五藏導引」이라는 소제목의 의미를 훨씬 파악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알기 쉽게 되

어 있으나 다른 卷에 인용되어 있는 『五臟六腑圖』 내용을 참고한다해도 『五臟六腑圖』의 전체적인 편제방식을 파악하기란 다른 문헌의 도움없이 쉽지가 않다. 이것은 역대 여러 의가의 의방서를 수집·분류하여 편별로 내용을 나눈 『醫方類聚』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³⁷⁾

따라서 『五臟六腑圖』의 전체적인 편제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문헌인 『道藏』의 『黃庭內景五藏六腑圖』³⁸⁾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³⁹⁾가 필수적이다.

36) 『諸病源候論校釋』 下冊,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 1468~1476 참고

37) 안상우·최환수, 『醫方類聚』 치법편의 구성과 특징, 한국 의사학회지, 2001. 참고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목차와 내용의 흐름을 근간으로 하여 『五臟六腑圖』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肺藏圖」의 내용을

재배열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고, 나머지 臟腑는 폐장도의 편제와 유사하므로 생략한다.

표 3. 『醫方類聚』 『五臟六腑圖』의 편제

黃庭內景五藏六府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五臟六腑圖
序文	序文	
肺藏圖	肺藏圖(그림)	肺藏圖(그림) / 卷之五 <五藏門二>
修養法	修養法	相肺藏病法 / 卷之五 <五藏門二>
相肺藏病法	相肺藏病法(排風散)	治肺藏病方(排風散) / 卷之六 <五藏門三>
治病肺藏方(消風散)	治肺六氣法	五藏禁忌(肺藏) / 卷之十二 <五藏禁忌>
導引法	月禁食忌法	肺藏修養法 / 卷之十二 <五藏導引>
	肺臟導引法	治肺藏吐納用咽法
		肺藏導引法
心藏圖	心藏圖	心藏圖
肝藏圖	肝藏圖	肝藏圖
脾藏圖	脾藏圖	脾藏圖
腎藏圖	腎藏圖	腎藏圖
膽藏圖	膽腑圖	膽藏圖
五藏圖文備記	釋音	五臟六腑圖文備記 / 卷之十二 <五藏導引>
元始太玄經曰		

세가지 문헌의 장부구성은 공통적으로 五臟과 膽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부배열이 肺-心-肝-脾-腎-膽의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膽이 肝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제일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독특한 구성인데,40) 이것은 『醫方類聚』 「五藏門」에 인용된 다른 의서의 장부구성과 장부배열과도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또한 六府의 개념에 있어서 기존 의학과는 다르게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내용에 의하면 ‘五藏數에 膽을 가하여 六府라 이름한다’41)라고 하였기 때문에 6

개를 제외한 다른 臟腑圖의 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전체적인 편제를 살펴보면, 위의 표에서와 같이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肺藏圖」는 序文, 肺藏圖, 修養法, 相肺藏病法, 治病肺藏方(消風散), 導引法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肺藏圖그림이 있지 않다. 마지막은 「五藏圖文備記」와 「元始太玄經曰」로 이루어져 있다.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는 序文, 肺藏圖, 修養

38) 『道藏』 4冊

39) 『道藏』 6冊

40) 이외에도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는 문헌은 『道藏』에서는 34冊의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 18冊의 『太上養生胎息氣經』이고, 17冊의 『四氣攝生圖』는 장부구성은 같으나 肝-心-肺-腎-脾-膽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遵生八牋』의 「四時調攝牋」에서는 장부구성은 같으나 肝-膽-心-脾-肺-腎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41) "以其五藏數加膽 名六府"

法, 相肺臟病法(排風散), 治肺六氣法, 月禁食忌法, 肺臟導引法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肺臟圖그림이 존재한다. 마지막은 釋音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른 문헌과 다르다. 釋音의 예를 들면 癍에 대하여 ‘발음은 加이고, 病을 뜻한다(音加病也)’라고 하여 발음과 뜻을 풀어놓았다.

『五臟六腑圖』를 의방유취에 인용된 순서대로 보면 肺藏圖, 相肺藏病法, 治肺藏病方, 五藏禁忌(肺藏), 肺藏修養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문이 없고, 肺臟圖그림이 있다. 마지막은 「五臟六腑圖文備記」로 되어 있다.

위의 표에서 소재목의 내용상 특징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는 서문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서문이 없는 판본을 참고한 것이거나 의방유취가 153종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만 취하여 서문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⁴²⁾ 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肺藏圖」의 내용에 있어서 『五臟六腑圖』는 『黃庭內景五藏六府圖』와 내용상 일치하나 『五臟六腑圖』에서는 肺藏圖(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원문 내용에서 본문과 주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本一居上對胸有六葉 色如縞映紅 (凡丈夫八十肺氣衰 魄離散也)”에서 괄호안에 있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다.

『五臟六腑圖』가 편집체계상 본문과 주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원문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도장보다 더 앞선 시기의 판본이나, 혹은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판본을 의방유취의 편찬자들이 참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⁴³⁾은 “『醫方類聚』 총론의 내용 편집은 인용문의 선정, 발췌 및 삭제, 해당 내용의 대조를 통한 교감과 추록, 주석, 인용문의 도해화 및 요약 정리, 분류 취합등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醫方類聚』의 편저자는 인용원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감하여 원저자의 원의와 논지를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五臟六腑圖』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더 정확한 판본을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五臟六腑圖』라는 서명으로 된 문헌이 조선에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실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道藏의 두 문헌으로는 원문과 주를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의방유취의 오장육부도는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道藏』의 원문에는 없는 부분을 『醫方類聚』는 포함하고 있다.⁴⁴⁾

42)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안상우, 2000. p. 48. 참고

“『醫方類聚』가 단순히 인용서를 적당히 편제한 것이 아니라, 인용서와 원서 및 參校書를 대조한 후 교감작업과 내용분석에 의한 발췌·산삭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는 것을 참고하면 의방유취에서 오장육부도가 산재되어 있거나 서문이 없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3) 『醫方類聚』의 의사학적 연구, 안상우, 2000, p. 62.

44) 『醫方類聚』 『五臟六腑圖』의 <五藏圖文備記>에는 『黃庭內景五藏六府圖』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현묘함을 믿지 않고 진리를 헐뜯으니 참으로 슬픈프게도 스스로 해를 당하는구나. 간혹 담력이 있는 사람도 갑자기 요괴스럽거나 非常한 靈을 만나면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부딪친다. 神이 강하고 바른 사람이면 반드시 冥神을 굴복시키니 어찌 神氣의 작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릇 叩齒는 전신의 斃氣를 없애는 것이며, 침을 양치질 하는 것은 六腑의 精을 보익한다. 이것도 또한 補하는 것이니, 직접 호흡하는 것만이 補寫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따름이다.

『五臟六腑圖』의 「治肺藏病方」에 있는 처방명은 排風散으로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 일치하며, 『黃庭內景五臟六腑圖』에는 消風散이라 되어 있다.⁴⁵⁾ 위의 세 처방은 약물내용과 처방용량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防風湯으로 3錢씩 먹는 것은 동일하다.

2. 『五臟六腑圖』의 「肺藏圖」

『五臟六腑圖』의 「肺藏圖」그림은 여타 醫學이나 道家서적에서도 보기 드문데, 다른 문헌의 「肺藏圖」그림들이 가지는 특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四時攝生圖』 등은 『五臟六腑圖』와 유사한 편제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肺藏圖」그림을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醫方類聚』의 영향을 받은 『東醫寶鑑』에도 「肺藏圖」가 있고, 「身形藏府圖」에서도 폐의 그림을 볼 수 있으므로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五臟六腑圖』의 「肺藏圖」의 그림에 관련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肺는 兌之氣와 金之精을 갖추고 있으며, 그 색은 희고 매달린 경쇠와 같은 형상이고, 그 神은 흰 짐승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肺는 魄을 생하는데, 변화하여 흰옷에 입고 병장기를 들고 있는 키가 七寸인 옥동

자가 되어 肺府를 往來한다. 또 肺에는 일곱동자와 열네명의 옥녀가 있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夫肺者 兌之氣 金之精 其色白 其狀如懸磬 其神形如白獸 肺生魄 化爲玉童長七寸 素衣持兵杖 往來於肺府也 一云 肺有七童子 十四玉女守之)

다음으로는 肺와 관련된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肺藏圖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1 『五臟六腑圖』의 「肺藏圖(그림 1)」

먼저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 대해서 살펴보면, 肺의 장기명 아래 兌卦의 괘상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兌之氣’과 ‘金之精’을 세로 두 줄로 적고 있다. 肺形象⁴⁶⁾에서 管과 같은 모양을 한 둥근기둥이 있는데, 끝에는 구멍으로 보이는 둥근 원이 있다. 이것은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의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 ‘喉’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肺와 이어져 있어서 肺로 하여금 天氣와 통하게 하는(天氣通於肺⁴⁷⁾) 주요한 통로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靈樞』⁴⁸⁾에서는 喉嚨이라 하여기가 위 아래로 드나드는 통로라 하였는데, 이러한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구멍 아래로 원기둥을 따라서 4개의 둥근 고리(環節)로 조여맨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4는 金의 生數이고, 肺는 金之精을 가지고 있으므로

(夫愚夫庸士 不信玄妙 謾其眞理 深可悲哉 自取傷毀 倘有一夫有膽氣 忽愚遇妖怪非常之靈 則努目切齒 神強正者 必伏冥神也 豈非神氣之用哉 何不信之 凡叩齒爲抽一身之斃氣 漱泉爲補益六腑之精 此亦爲補也 非直嘔吸 獨稱補耳)”

45) 각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肺藏圖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黃庭內景五臟六腑圖』의 消風散 : 人蔘九分 玄參七分 防風八分 沙參八分 天雄八分 薯蕷十分 丹參七分 苦參八分 秦芫七分 小茱萸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排風散 : 人蔘七分 防風八分 羌活八分 沙參五分 天雄八分 薯蕷十分 丹參七分 苦參八分 秦芫八分 山茱萸八分 玄參七分

『五臟六腑圖』의 排風散 : 人蔘八分 玄參七分 防風八分 沙參五分 天雄八分 薯蕷十分 丹參七分 苦參八分 秦膠七分 山茱萸五分

46) 동의보감에서 장부에 대한 모습을 설명할 때 形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47) 素問. 陰陽應象大論篇 第五

48) 靈樞. 憂患無言 第六十九 “喉嚨者, 氣之所以上下者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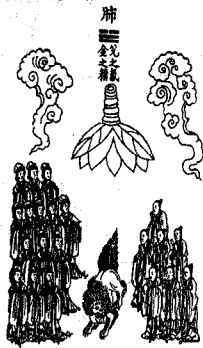


그림 1. 五臟六腑圖의 肺藏圖

4개의 고리는 肺가 金之精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아래로 두개의 나뭇잎이 옆으로 갈라져 있으며, 그 사이로 5개의 작은 잎이 갈라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 모두 七葉이 되므로 의방유취의 원문에서의 六葉⁴⁹⁾과는 다르게 되어 있다.

양 옆으로는 구름이 올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黃庭經·心神章第八』의 “晝夜存之自長生”에 대한 「梁丘子注」를 보면 “선경에서 말하기를 오장의 기가 변하여 오색의 구름이 되는데 정수리 위에 있으면서 一身을 덮고 있다”⁵⁰⁾고 하였고, “五岳之雲氣彭亨”에 대하여 「梁丘子注」에서 “五藏의 氣가 五嶽의 구름이 된다”⁵¹⁾하였다.

또한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서문에서 “五藏의 氣가 맺혀서 五雲이 되고 天中으로 들어간다”⁵²⁾ 라고

하였다.

따라서 폐장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이 양 옆으로 피어올라가 天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름모양으로 형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쪽에는 7명의 동자와 14명의 옥녀가 있으며, 그 사이로 百獸가 웅크린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2 『道藏』의 肺藏圖

道藏에서는 세가지의 문헌을 통해서 肺藏圖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그림 2)에서는 百獸가 네 발로 서있는 形象만 그려져 있고 肺形象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따로 있지는 않다.

『上清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그림 3)에서는 “治肺當用咽 咽爲瀉 吸爲補”라는 육자결 호흡법과 간략화 된 肺藏圖 및 앉아있는 百獸의 모습을 하고 있다.

『四時攝生圖』(그림 4)에서는 肺神이란 명칭아래 “名皓華 字虛成”⁵³⁾이라고 황정경의 글을 인용하고 있으며, 肺藏에 대한 설명에서 “여섯개의 엽과 두개의 귀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여덟 개의 葉을 가지고 있다.”⁵⁴⁾ 하였다.

다른 그림과는 다르게 百獸가 폐장의 안에 그려져 있는데, 이는 기존에 외부에 있던 神이 몸안으로 들어와 장기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黃庭經』의 梁丘子注⁵⁵⁾에서 “해는 앞에 위치하고 달은 뒤에 위치한다. 좌측은 청룡, 우측은 백호, 앞은朱雀, 뒤는 현무를 세우면 사기를 제거하고 장생할 수 있

49) “本一居上 對胸 有六葉”

50) “仙經曰存五藏之氣 變爲五色雲 當頂上 覆蔭一身” 『道藏』 4冊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注 梁丘子撰> p. 849.

51) “五藏之氣爲五岳之雲” 『道藏』 4冊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注 梁丘子撰> p. 854.

52) “五藏之氣結五雲而入天中” 『道藏』 4冊

53) 『黃庭經 心神章 第八』에는 “肺神皓華 字虛成”이라고 되어 있다.

54) “六葉兩耳 共八葉” 『道藏』 17冊

55) 『道藏』 4冊 p. 849, “日居於前 月居於後 左青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卽去邪長生之道也”

는 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몸의 바깥에 神을 세우는 것이 内外의 邪氣를 제거하거나 장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외부에 있어야 할 神이 중간에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기와 합치되는 것으로 神에 대한 관점이 변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3 『東醫寶鑑』의 肺藏圖

『東醫寶鑑』의 肺藏圖(그림 5)는 어깨의 모양을 하

고서 양옆으로 퍼진 두개의 葉안으로 3개씩 작은 葉이 중층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難經』 56의 “六葉兩耳, 凡八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四時攝生圖』에서 六葉이 나란히 있는 것과는 달리 3개씩 중층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안에는 24절기를 의미하는 24개의 구멍이 8개씩 3줄로 되어 있다. 肺의 위에는 喉가 이어져 있으며, 다른 肺藏圖에서 보이는 구멍이나 環節는 보이지 않고 기둥에 잔주름만 그려져 있다.



그림 2.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그림 3.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그림 4. 四時攝生圖

「身形藏府圖」(그림6)는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것으로 폐부위만을 취한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위에 구멍이 보이며, 喉를 나타내는 원기둥에 몇 개의 환절이 감고 있다. 인사귀가 여러 개로 퍼져 있어서 葉의 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東醫寶鑑』 「五臟六腑門」의 肺藏圖보다 오히려 의방유취의 폐장도와 유사하게 보인다.

圖 臟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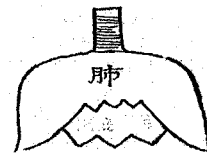


그림 5. 肺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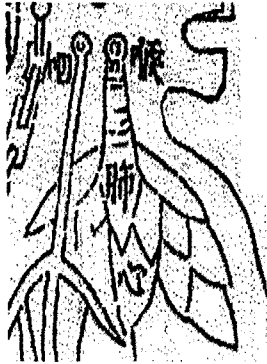


그림 6. 身形藏府圖

이상과 같이 각 폐장도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五臟六腑圖』의 「肺藏圖」의 그림에 관련된 원문을 기준으로 볼 때 『五臟六腑圖』의 「肺藏圖」는 『道藏』의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上清黃庭五藏六腑真人玉軸經』 57), 『四時攝生圖』 58)와 『東醫寶鑑』 등에 비하여 卦象(兌卦), 肺藏圖, 좌측의 일곱童子와 우측의 열넷 玉女등의 그림이 원문의 내용에 가장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結論

이상과 같이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 대하여 『道藏』에 인용되어 있는 『黃庭內景五藏六腑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과 史料 등을 통해서 저자, 저술배경, 저술시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肺藏圖」를 중심으로 『五臟六腑圖』의 편제를 살펴보았다.

『五臟六腑圖』의 저자는 호음의 저작으로 알려진 문헌들과의 내용과 편제를 비교해 볼 때 胡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胡愔은 당나라 때 활동했던 女醫家이자 女道士로서 號는 見素子 또는 見素女라 한다. 黃庭經과 舊圖의 요한 이치를 깨달아 宣宗 大中 4년 즉 848년(戊辰年)에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또는 『黃庭內景五藏六腑圖』를 지었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저작이 있다. 이 저작들은 세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胡愔方』, 둘째가 內景에 관련된 문헌, 셋째가 外景에 관련된 문헌이다.

저작들의 書名에 있어서 黃庭·內景·外景이란 용어가 많이 출현하는 것은 黃庭經의 체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黃庭經에 대한 연구를 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五臟六腑(五藏六府)와 內景이란 용어를 통해서 호음은 외단쪽보다는 인체 내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황정경과 의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체계를 세울려는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黃庭內景五藏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인체 내부, 즉 장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하고나서 修行할 것을 강조하고, 도가수련에 있어서 외부의 金丹에 의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당나라때에 이미 外丹의 부작용이 사회전반에 퍼져있는데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후학들을 위해 여러 경서에 근거하여 별도로 圖式을 만들어 수행하게 함으로써 異端에 빠지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본래의 면목이 드러나 만물에 밝아지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연장시키며 신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다.

『五臟六腑圖』의 저작연대에 대해서는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의 序文에 의하여 당나라 宣宗 大中 2年(848年, 戊辰年)으로 본다.

『五臟六腑圖』, 『黃庭內景五藏六腑圖』, 『黃庭內景

57) 『道藏』 34冊

58) 『道藏』 17冊

『五臟六腑補瀉圖』의 장부구성은 五臟과 膽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부배열이 肺-心-肝-脾-腎-膽의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膽이 肝과 같이 붙어있지 아니하고 五臟의 뒤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장부구성과 배열은 『醫方類聚』의 『五臟門』에 인용된 다른 의서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또한 6개의 장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른 장부도의 존재여부를 의심해볼 수 있으나, 六府의 개념이 기존 의학과는 다르게 ‘五臟數에 膽을 가하여 六府라 이름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6개를 제외한 다른 臟腑圖의 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五臟六腑圖』의 「肺臟圖」는 『黃庭內景五臟六腑圖』와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와는 달리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헌에는 인용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편집체계상 본문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と 編制에 대한 고찰

과 주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장본보다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판본을 참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醫方類聚』의 「肺臟圖」에서 卦象(兌卦), 肺藏圖, 일곱 童子와 열넷 玉女, 좌우 구름 등을 묘사놓은 그림을 볼 때 여타 「肺藏圖」에 비하여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앞으로 저자인 胡愔의 생애와 『五臟六腑圖』의 원문 및 시대적인 학술배경에 대해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차후 의학유취 안에 흩어져 있는 내용을 채집하여 원모를 복원하는데 결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다른 道家와 醫學의 오장육부학설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면 臟腑論의 형성과정과 五臟六腑의 개념이 변천되어가는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1.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 왕조실록, 서울시스템, 1997.
2. 『新唐書』中華書局.
3. 『宋史』中華書局.
4. 『醫方類聚』, 김예몽 등撰.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人民衛生出版社, 1981.
5. 『東醫寶鑑』, 허준, 남산당, 1987.
6. 『醫方類聚』 편찬과 조선전기 의서, 안상우, 1999.
7. 『醫方類聚』의 의사학적 연구, 안상우, 2000.
8.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道藏』 4冊,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9.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道藏』 4冊.
10. 『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注』, 梁丘子撰, 『道藏』 4冊.
11.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道藏』 6冊.
12. 『四時攝生圖』, 『道藏』 17冊.
13. 『三洞道士居山修鍊科』, 『道藏』 32冊.
14. 『上清黃庭五臟六腑真人玉軸經』, 『道藏』 34冊.
15. 『漢醫學大辭典』, 『醫史文獻篇』,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1985.
16. 『道教大辭典』, 華夏出版社, 1995.
17. 『中華道教大辭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8. 『道教醫學』, 盖建民 著, 宗教文化出版社, 2001.
19. 『道教文化辭典』, 江蘇古籍出版社, 1994.
20. 『中國醫籍大辭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下冊.
21. 『中國醫籍通考』, 嚴世藝 主編, 上海中醫藥學院出版社, 1993.
22. 『韓國醫學史』, 金斗鍾, 探求堂, 1993.
23.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孫弘烈, 1988.
24. 『도교란 무엇인가』, 崔俊植·김, 民族社, 1990.
25. 『中醫文獻學』, 馬繼興,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26.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2.